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37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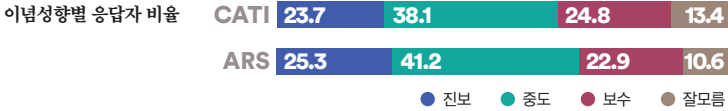
제52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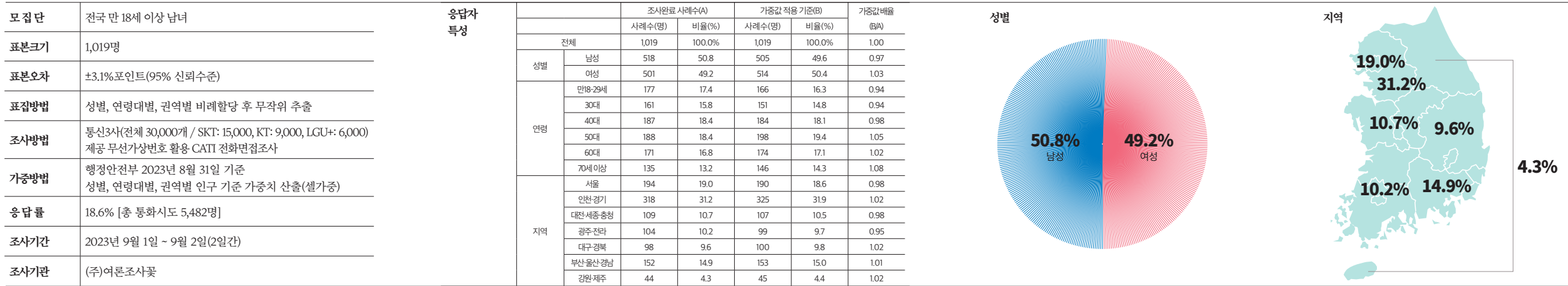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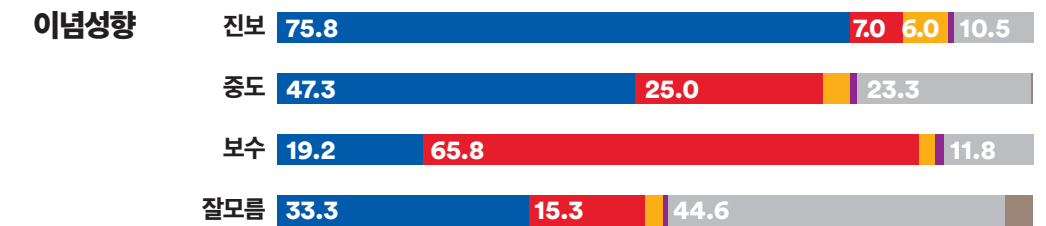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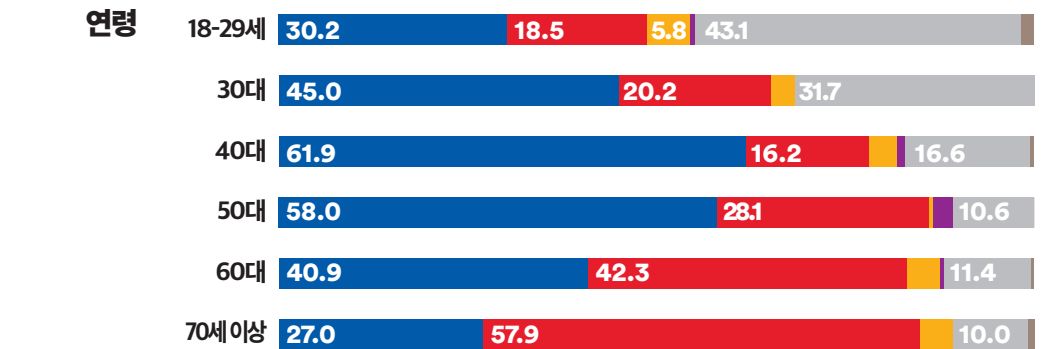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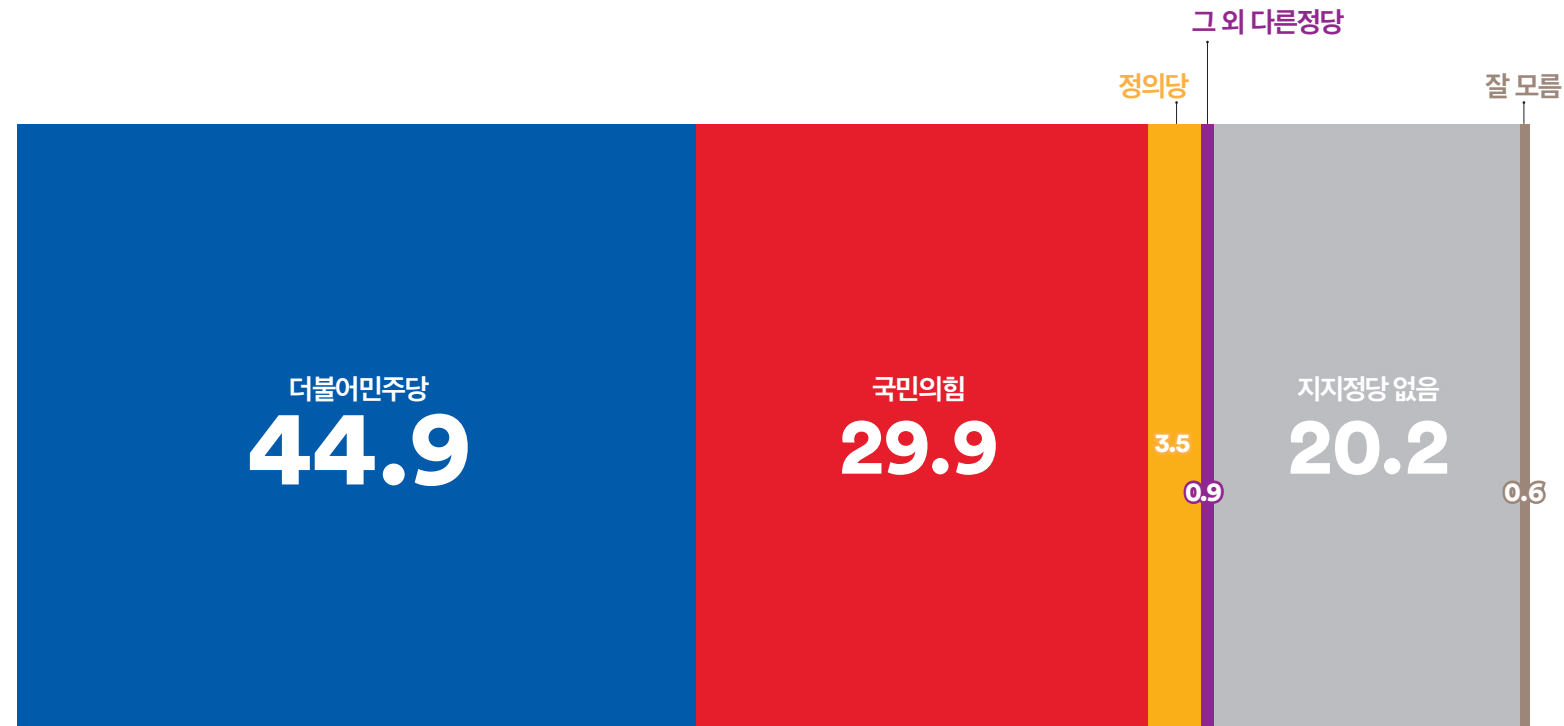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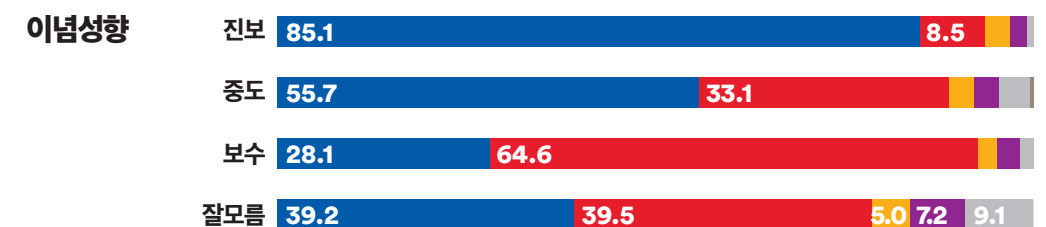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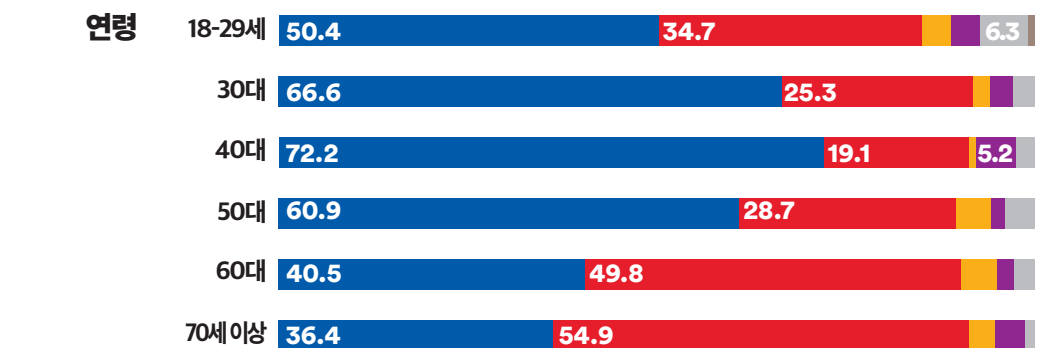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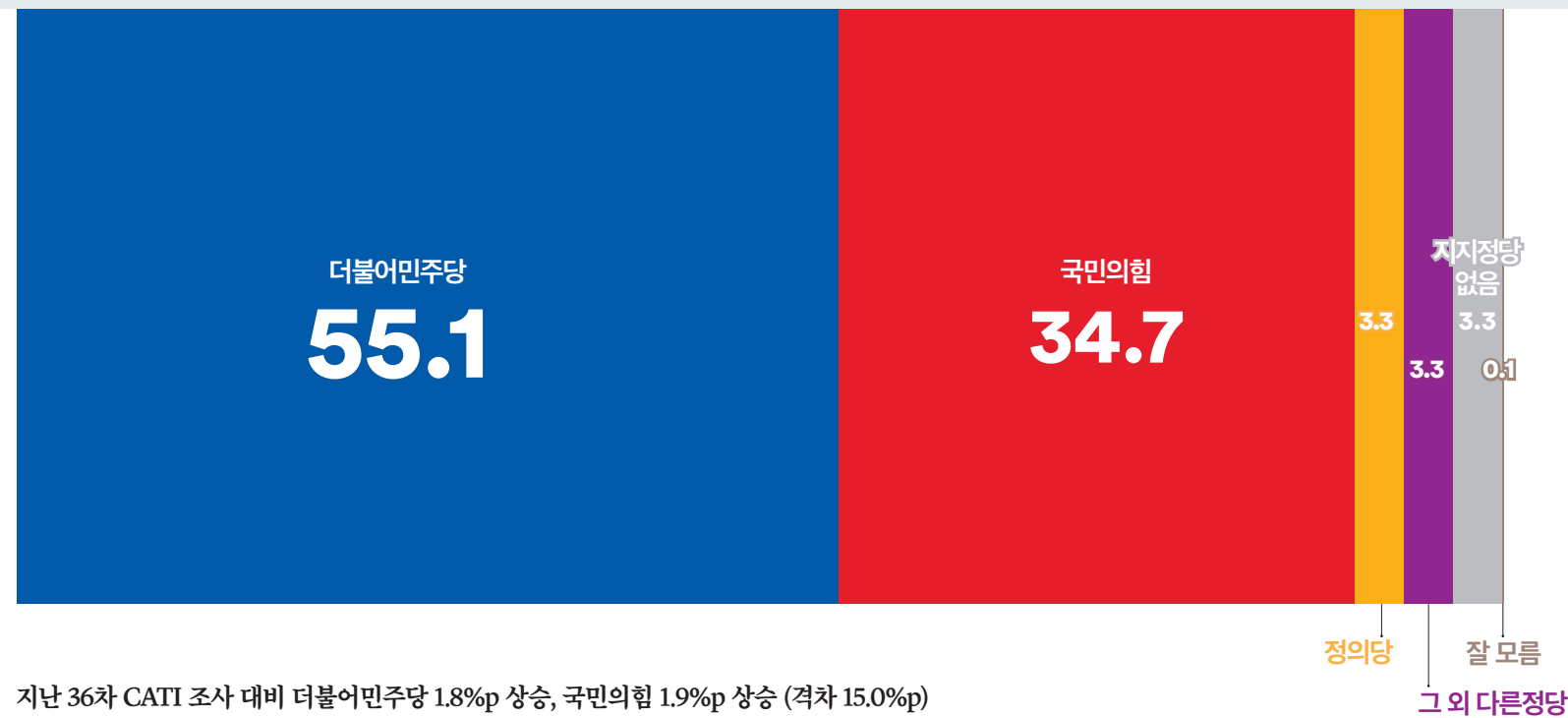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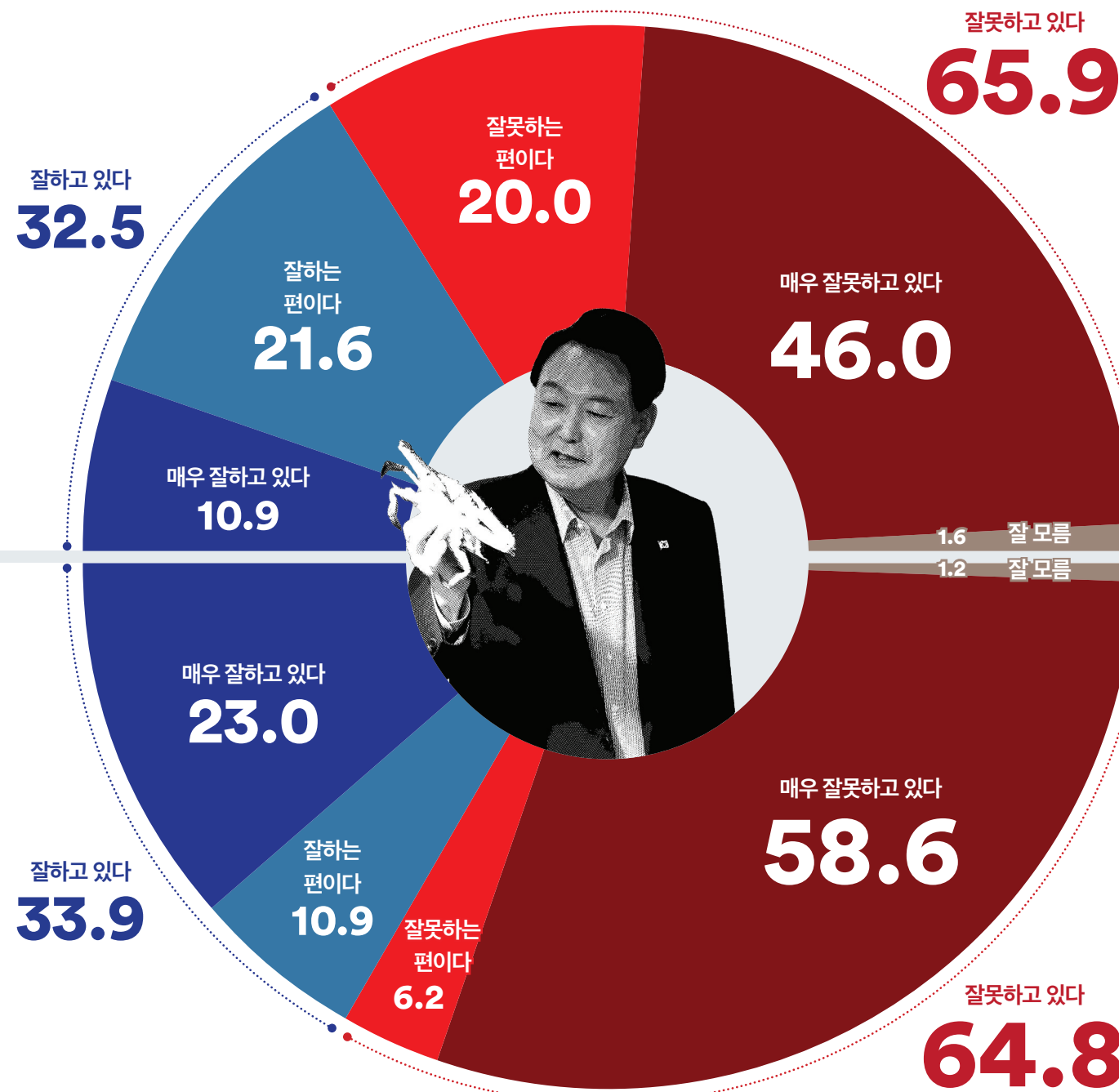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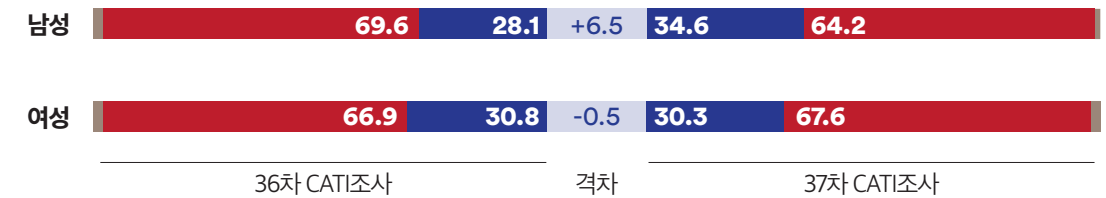
지난 36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8%p 상승, 국민의힘 1.9%p 상승 (격차 15.0%p)
 지난 51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8%p 상승, 국민의힘 변동 없음 (격차 20.4%p)
 수도권과 호남, 50대 이하 연령층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TK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앞섬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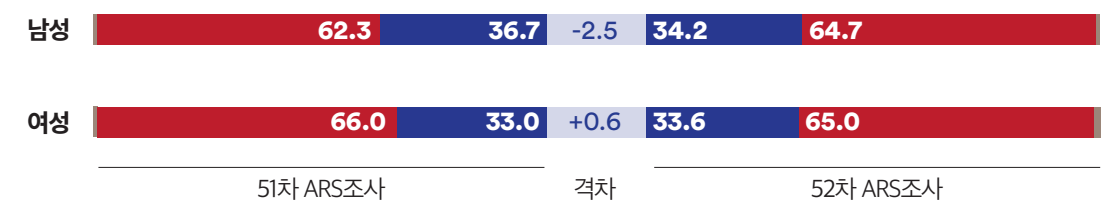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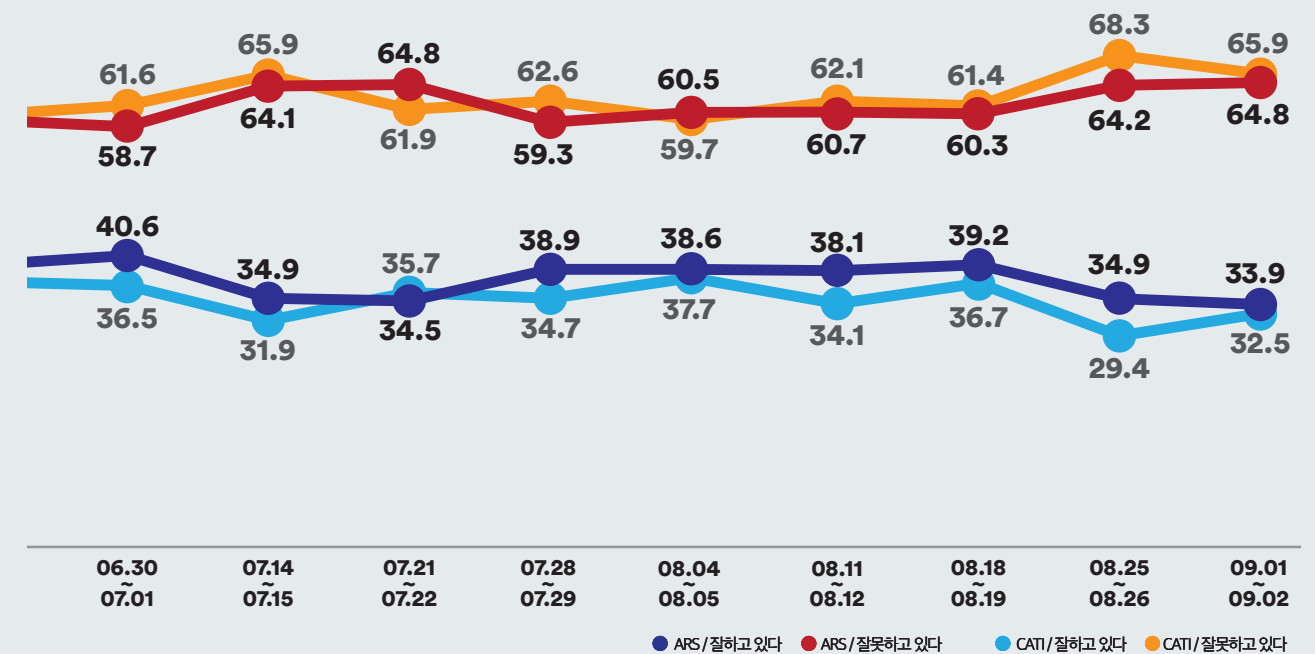
CATI



지난 36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3.1%p 상승, 부정평가 2.4%p 하락 (격차 33.4%p)
 지난 51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1.0%p 하락, 부정평가 0.6%p 상승 (격차 30.9%p)
 두 조사 모두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부정 평가,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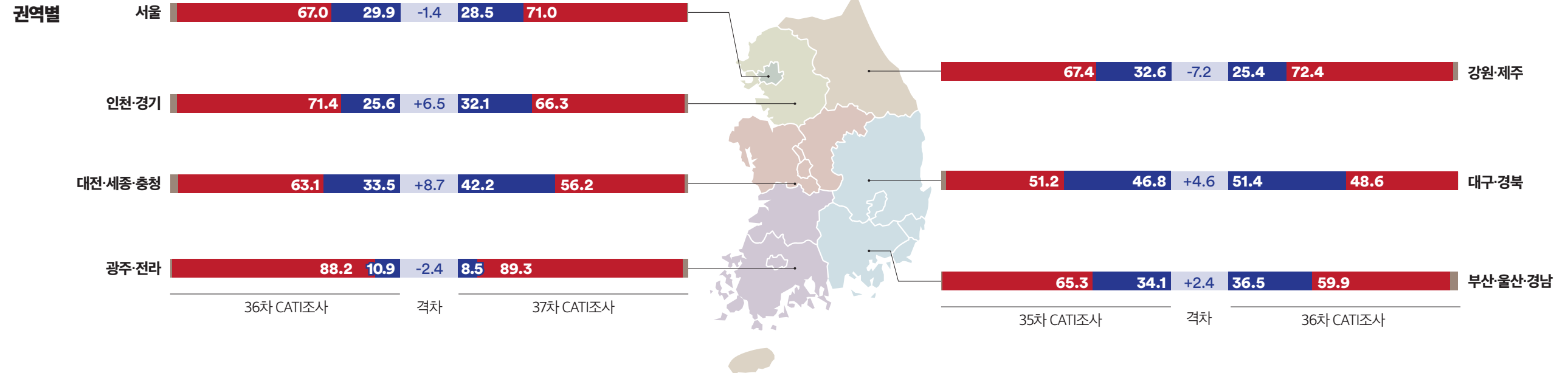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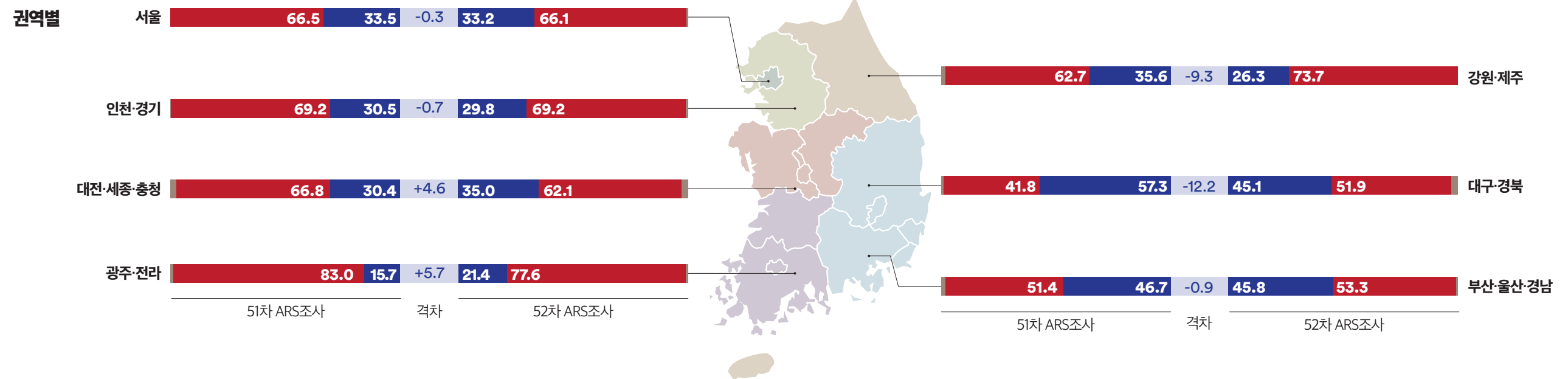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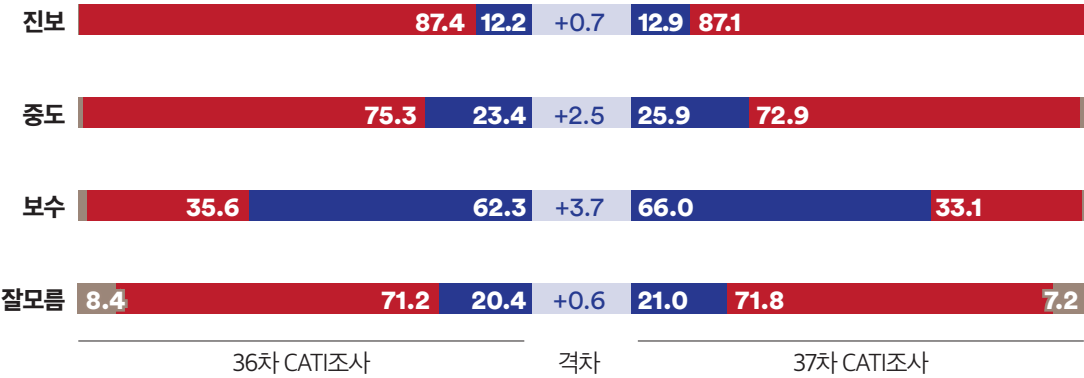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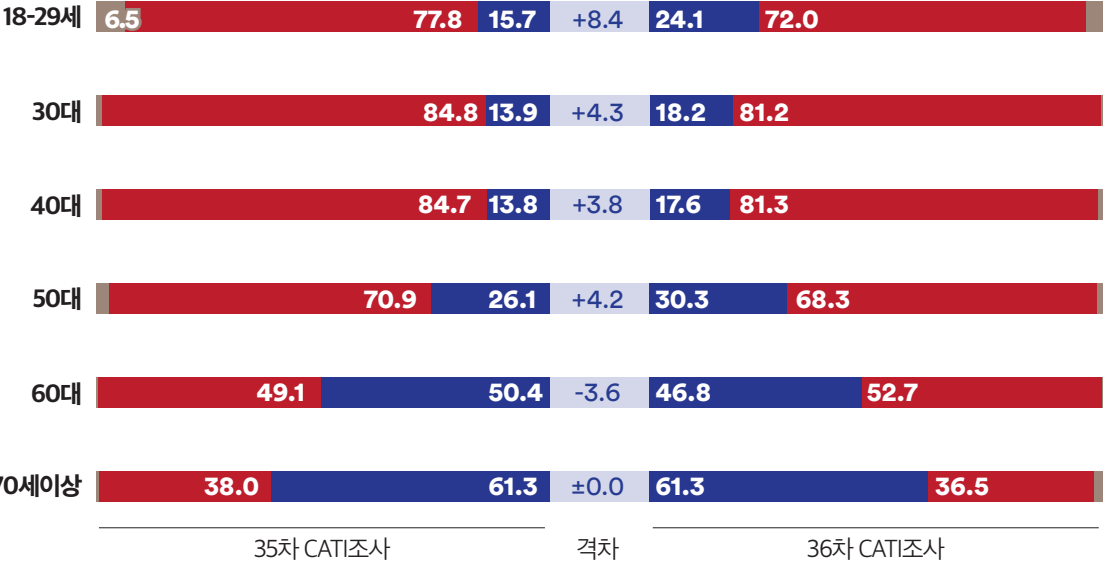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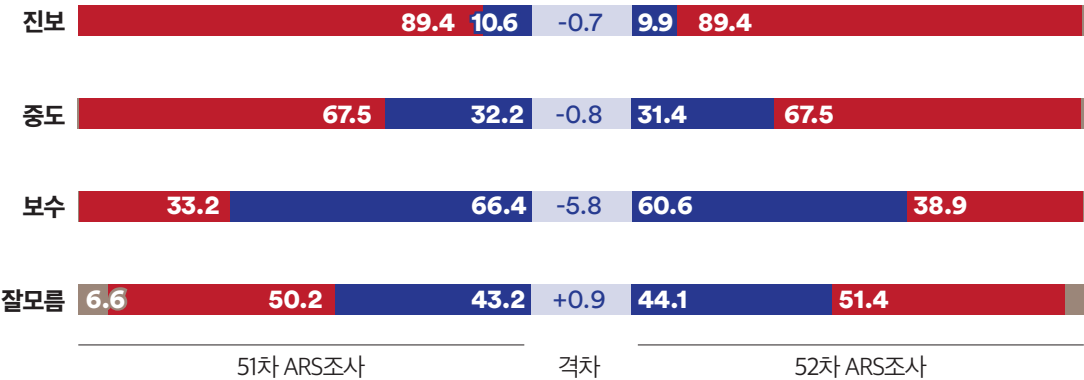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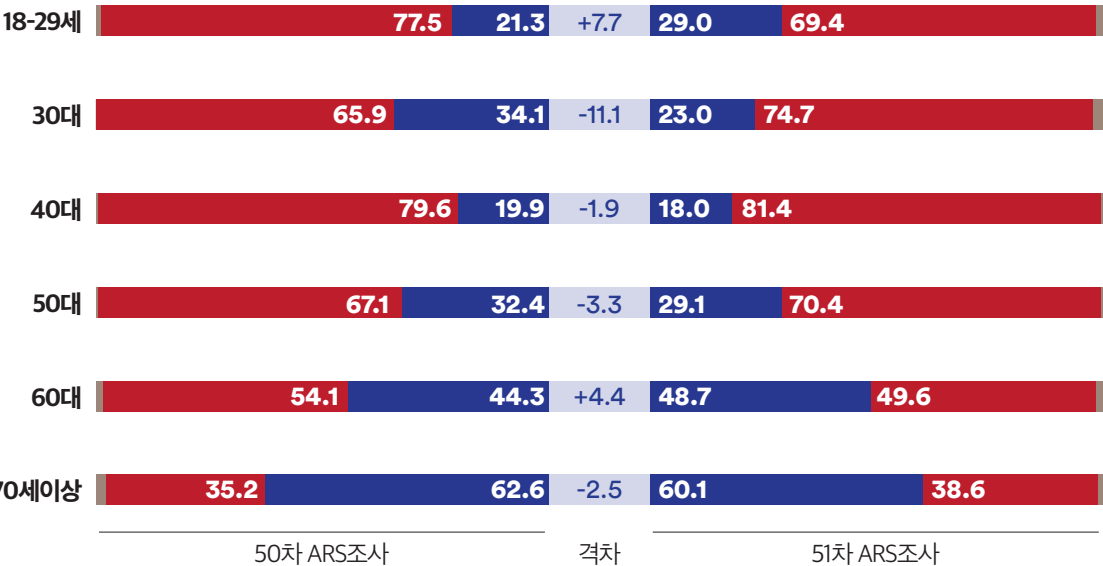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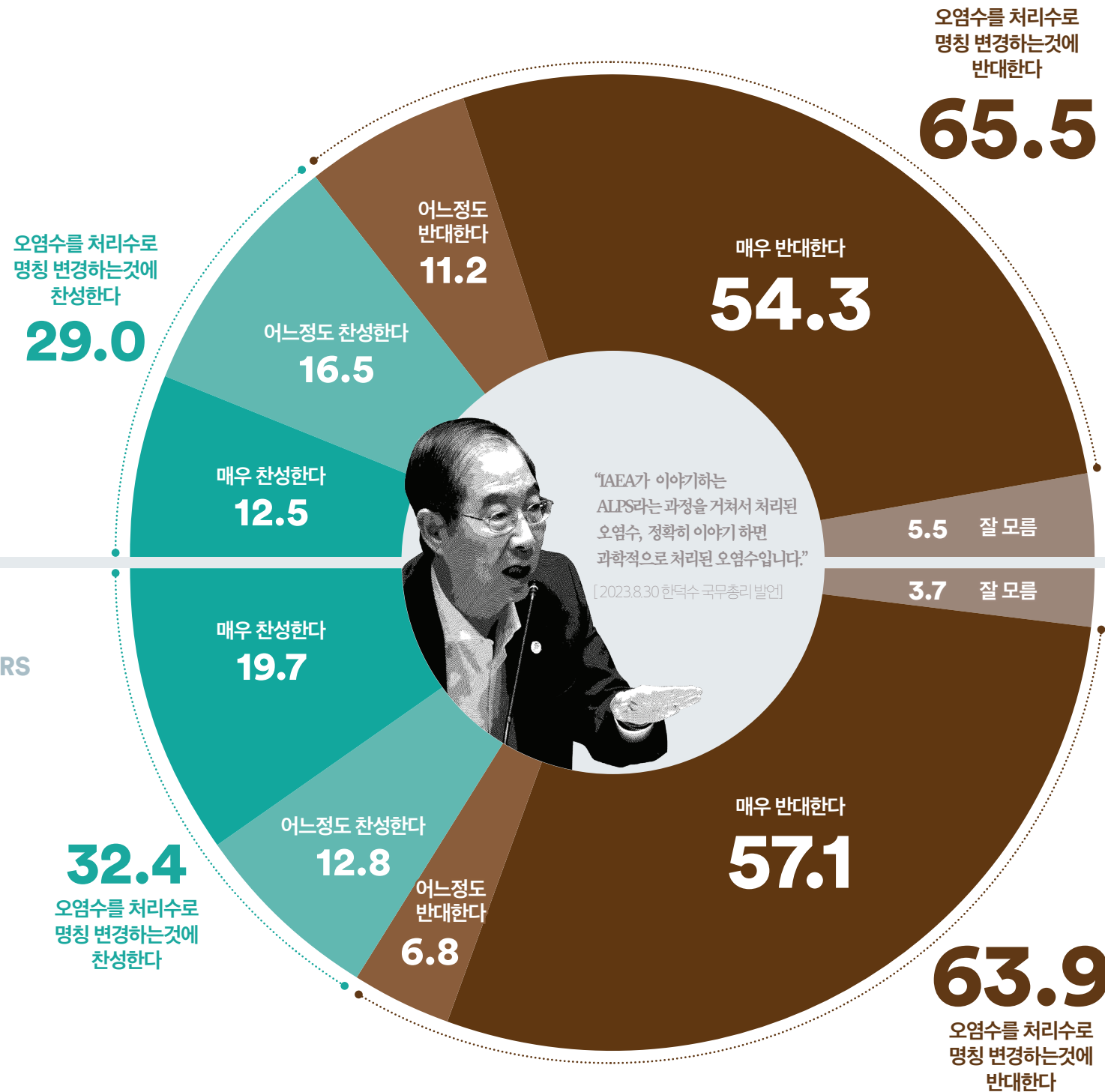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정부와 여당 내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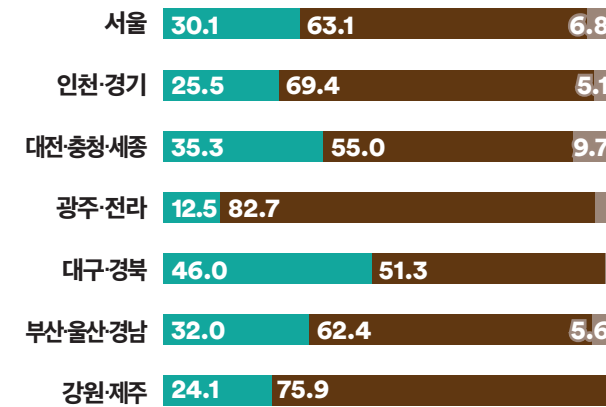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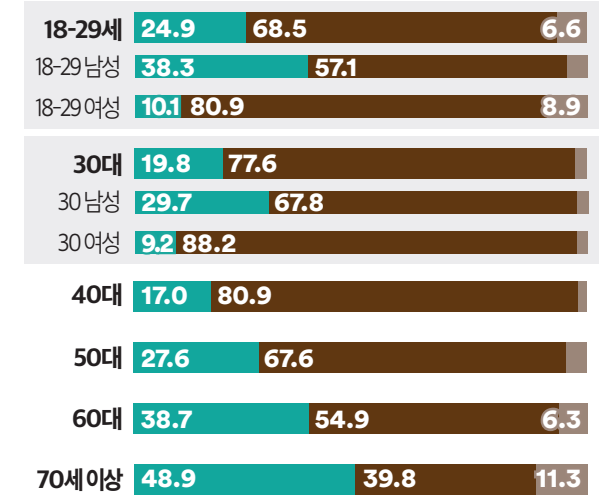
ARS

10명 중 6명 이상은 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 이상
 모든 권역, 50대 이하 연령층(CATI 60대 포함)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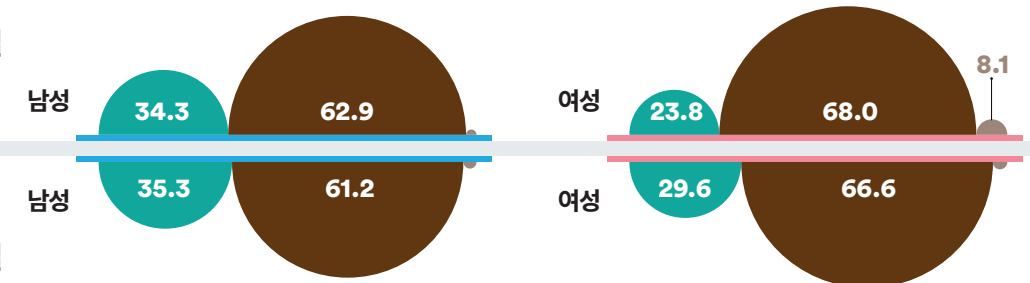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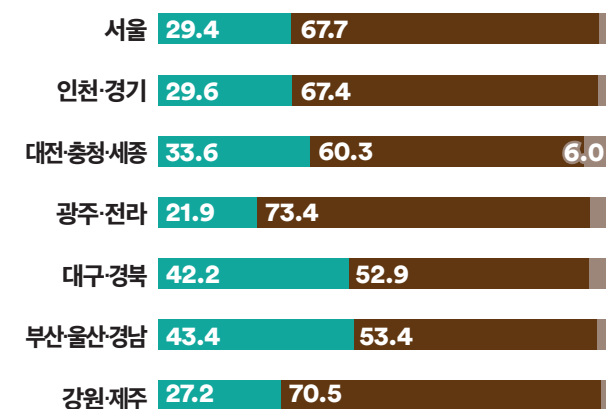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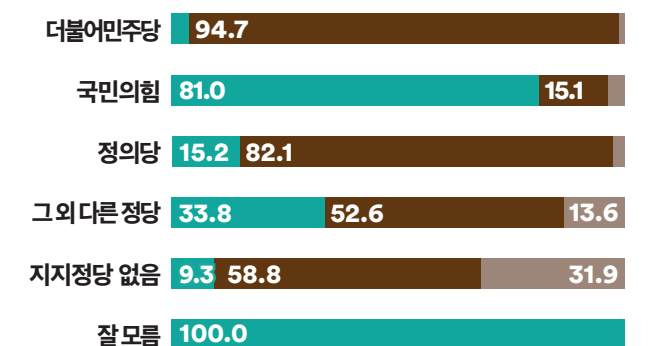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

Q. 핵 오염수로 인한 우리 수산업의 피해에 대해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일본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76.9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지금도 중단할 수 있다.”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

[2023.8.2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대표 발언]

일본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다

20.8

잘 모름

매우 공감한다

53.1

어느정도 공감한다

23.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0.3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0.5

2.3

ARS

54.6

매우 공감한다

14.1

어느정도 공감한다

15.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2.3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9

68.7

일본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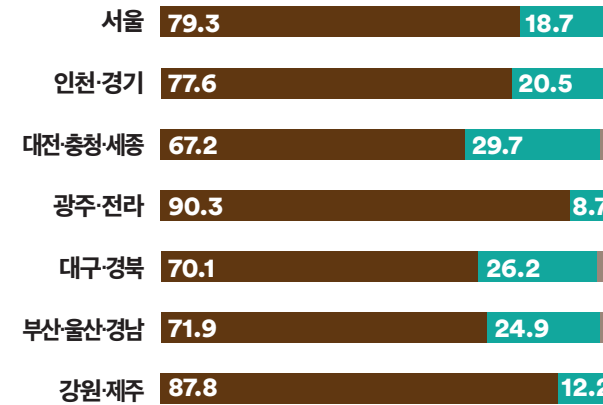
27.4

일본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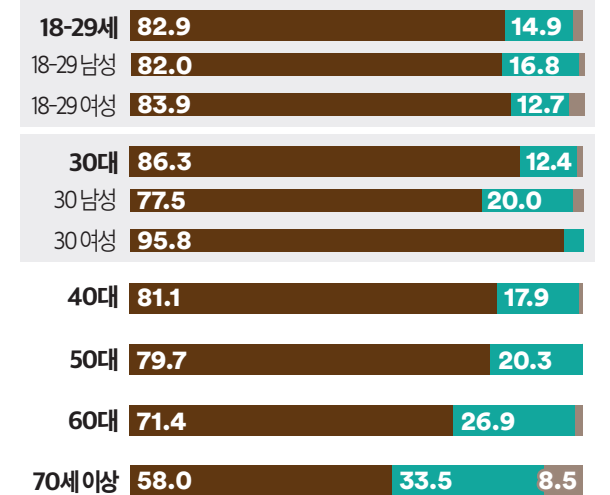
잘 모름

10명 중 7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은 일본이 우리 수산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에 공감,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 이상
모든 연령과 권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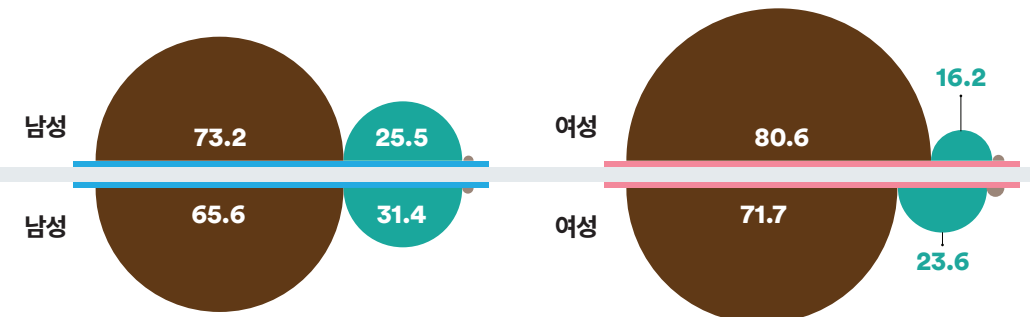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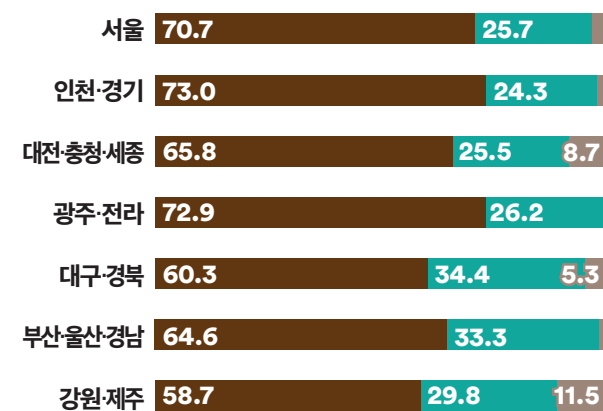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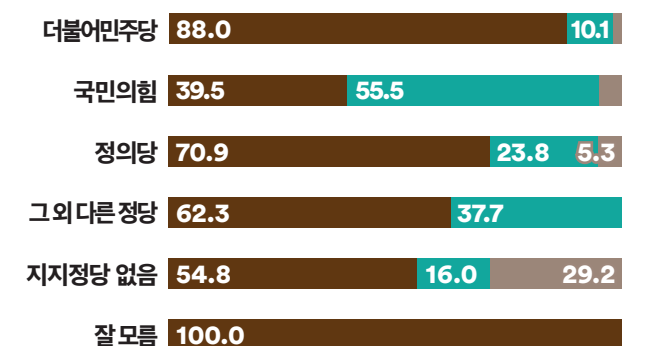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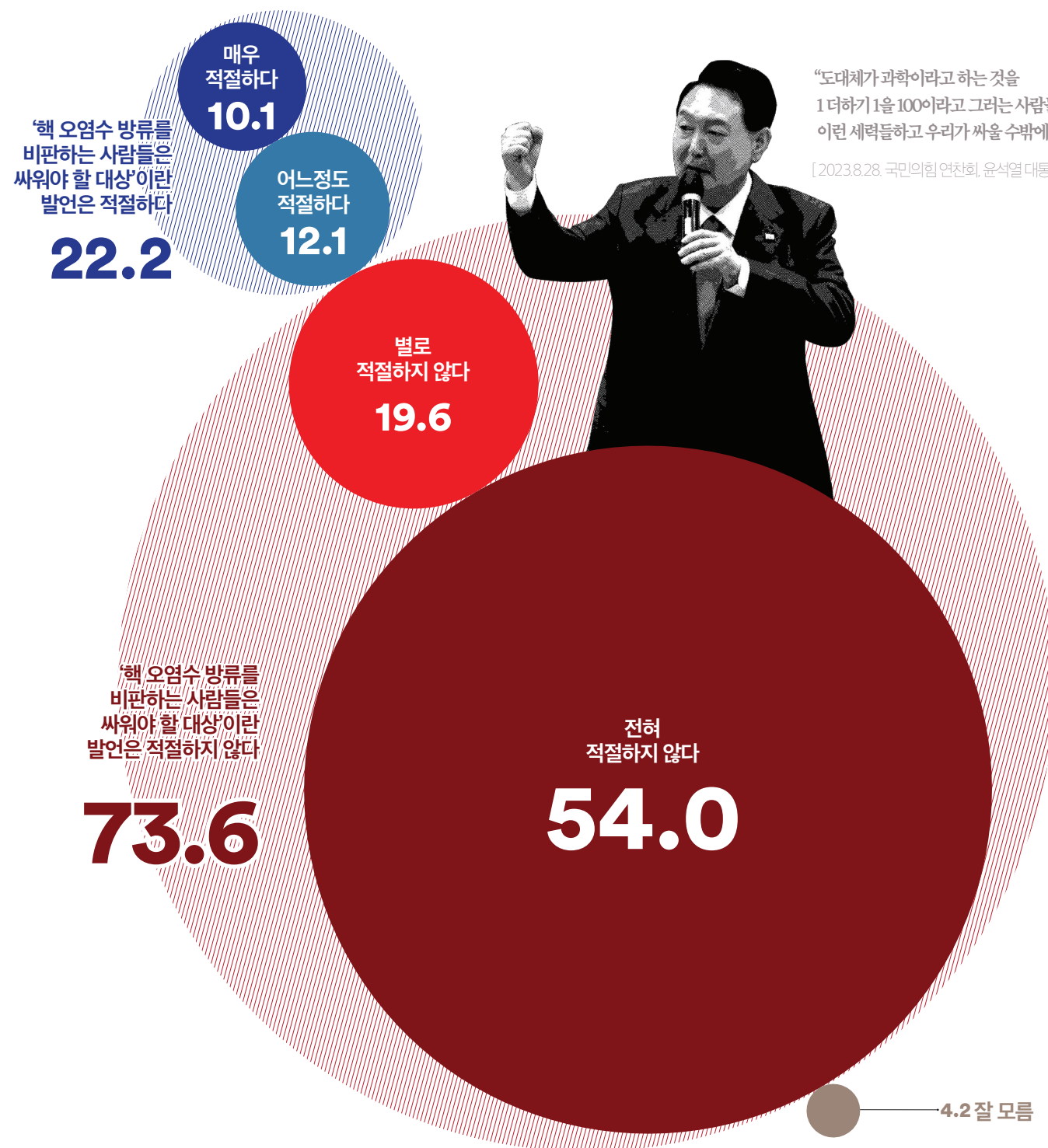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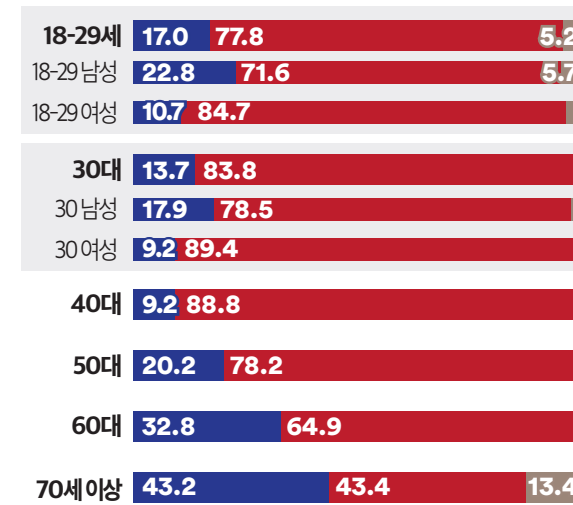
윤 대통령이 말하는 '싸워야 할 대상'

Q.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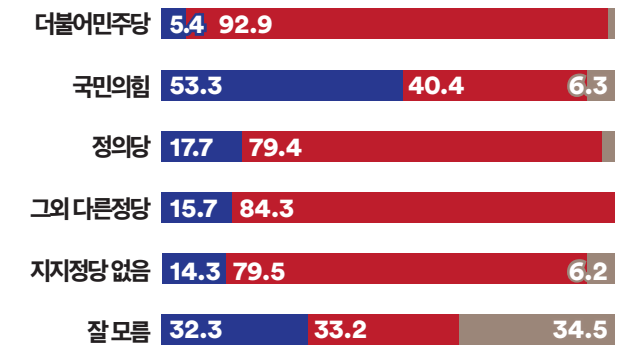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은 ‘윤 대통령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5명 이상으로 나타나 주목됨
60대 이하 연령대(70세 이상 박빙)와 모든 성별, 권역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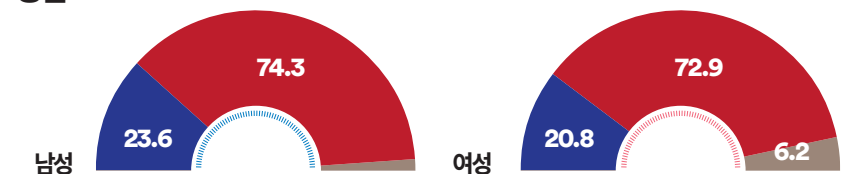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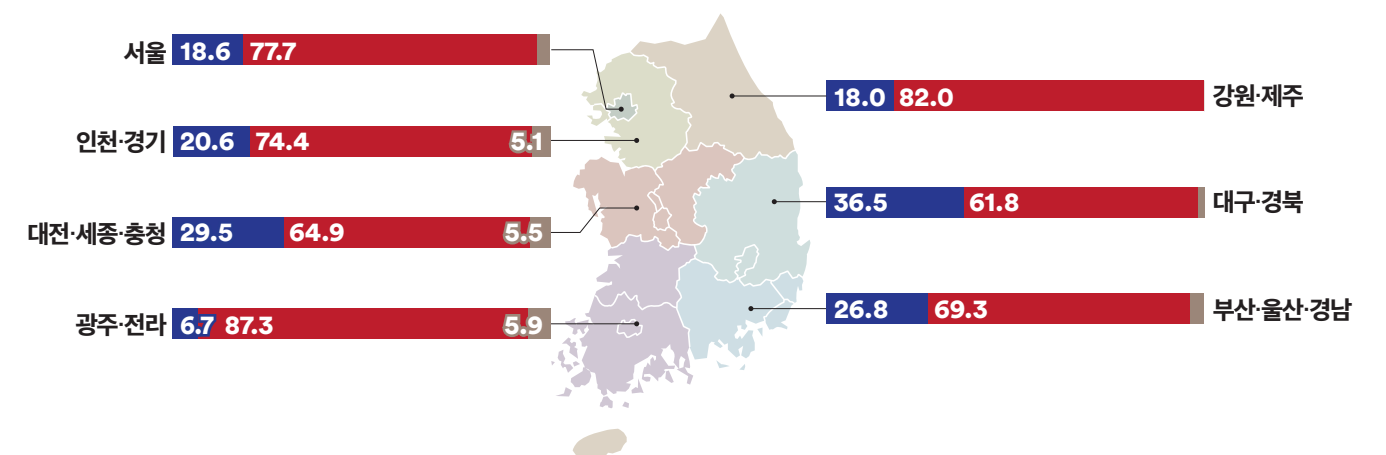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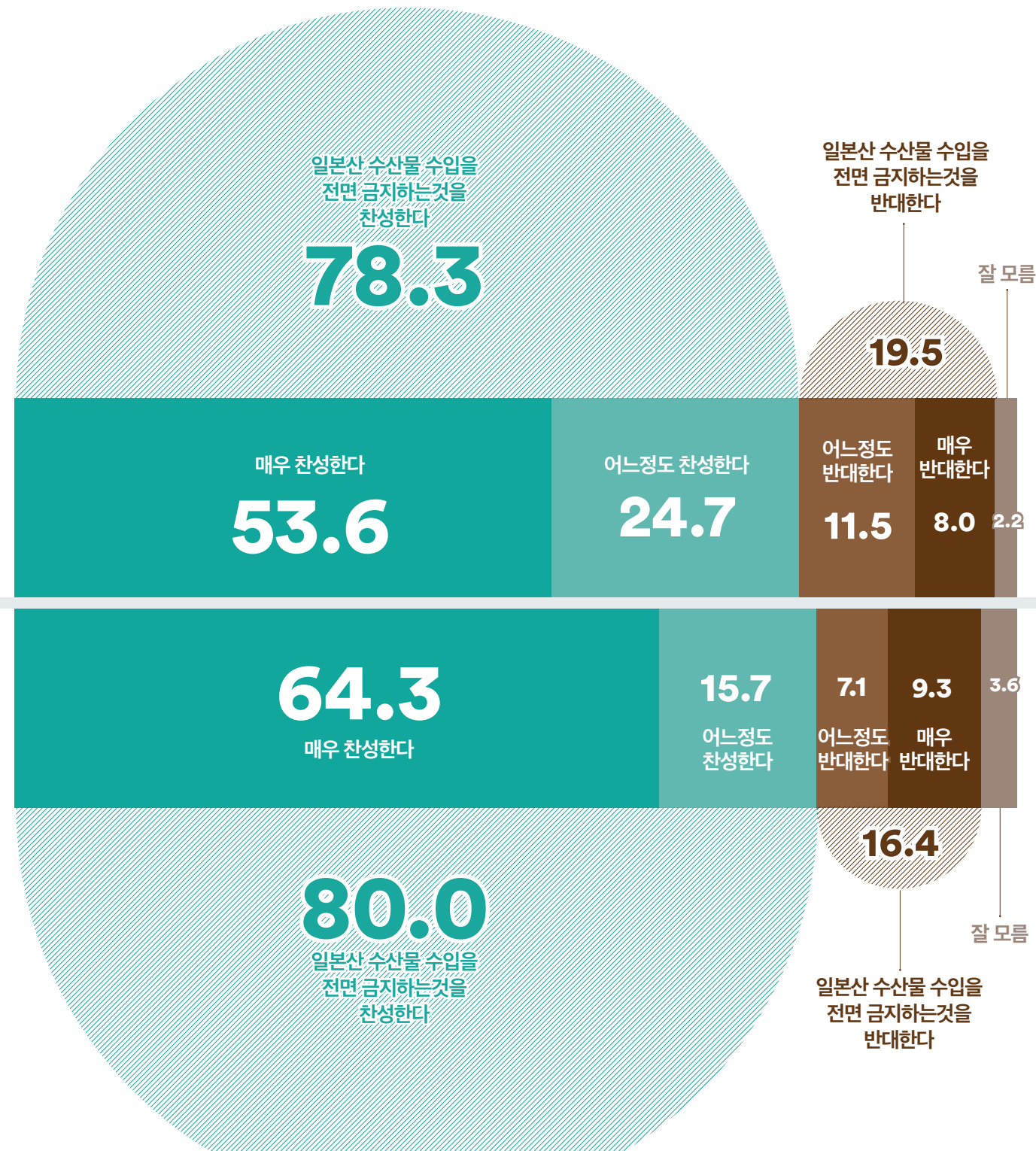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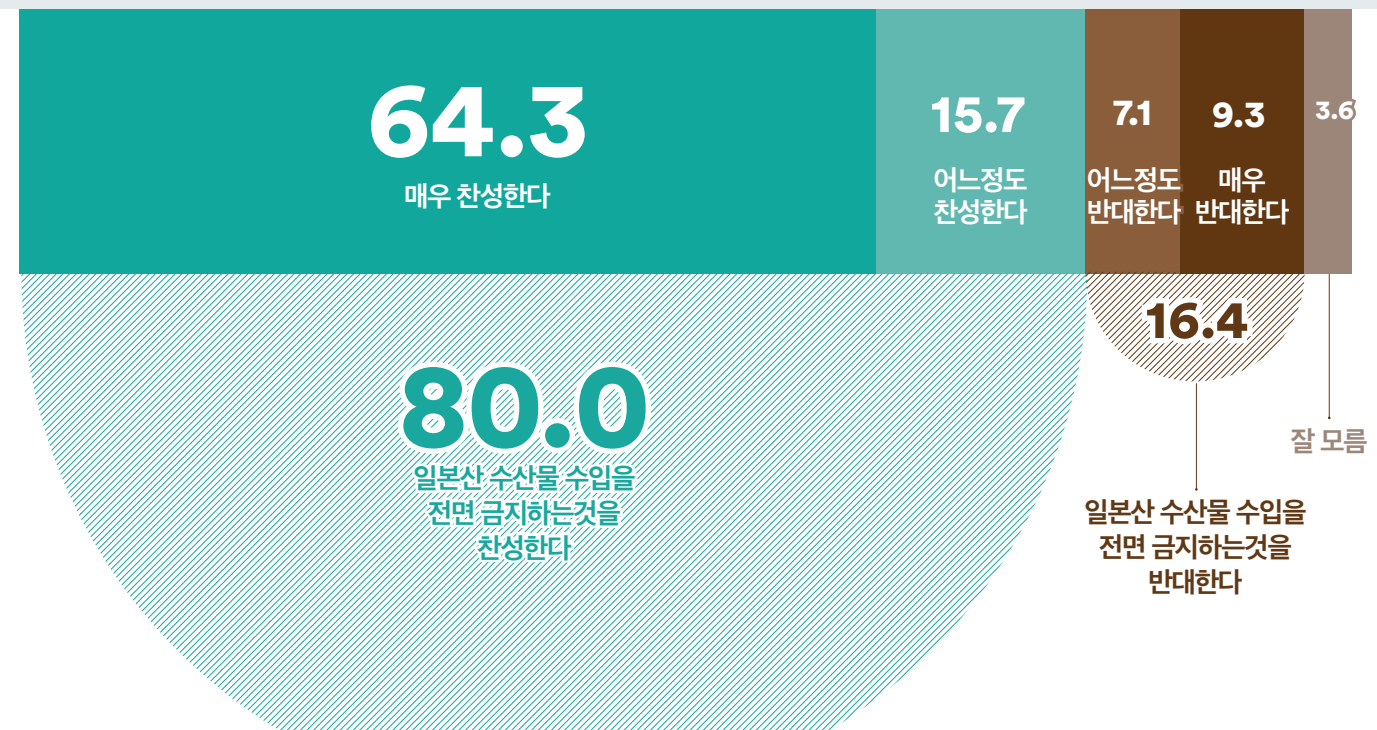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Q. 중국은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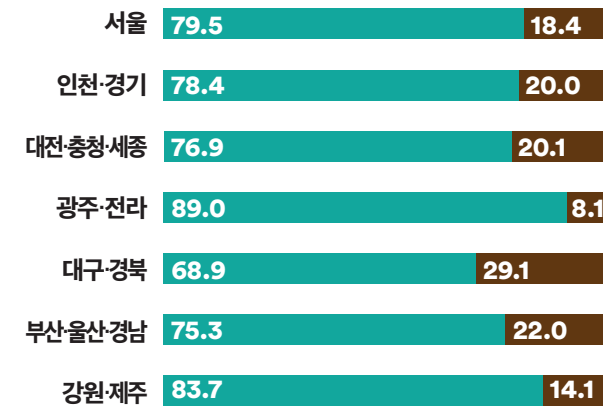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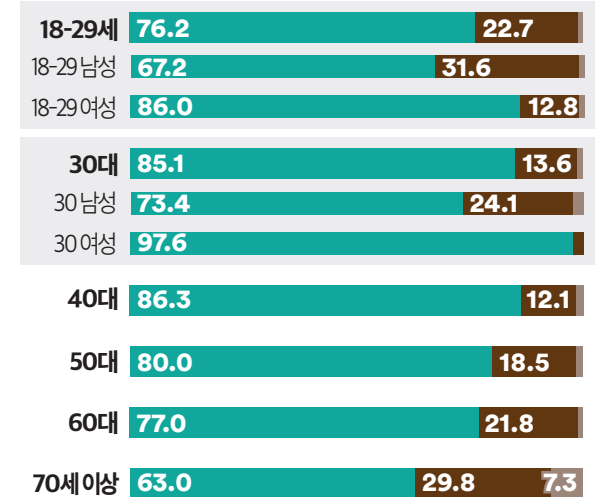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8명 정도 혹은 이상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에 찬성한다'고 응답,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상회
'연령대 by 성별' 변수의 70세 이상 남성을 제외하면, 모든 지표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
두 조사 모두 30~50대 여성층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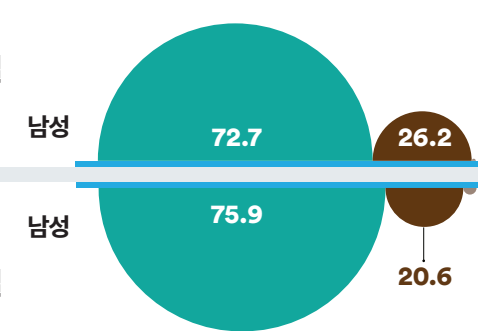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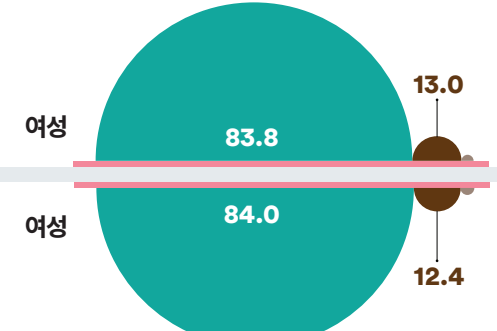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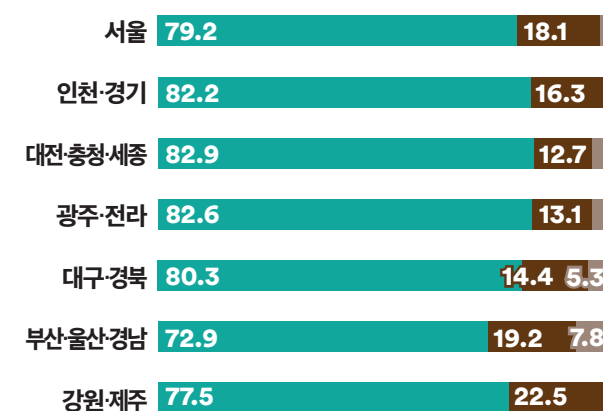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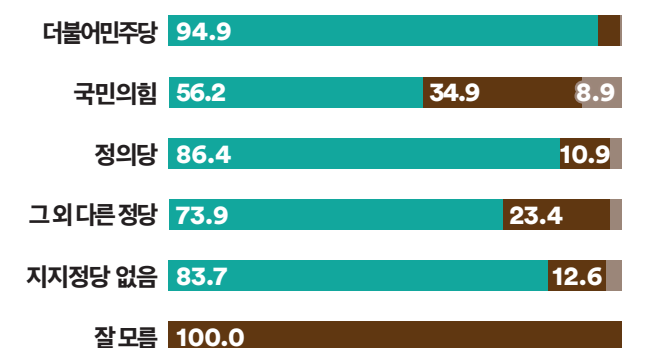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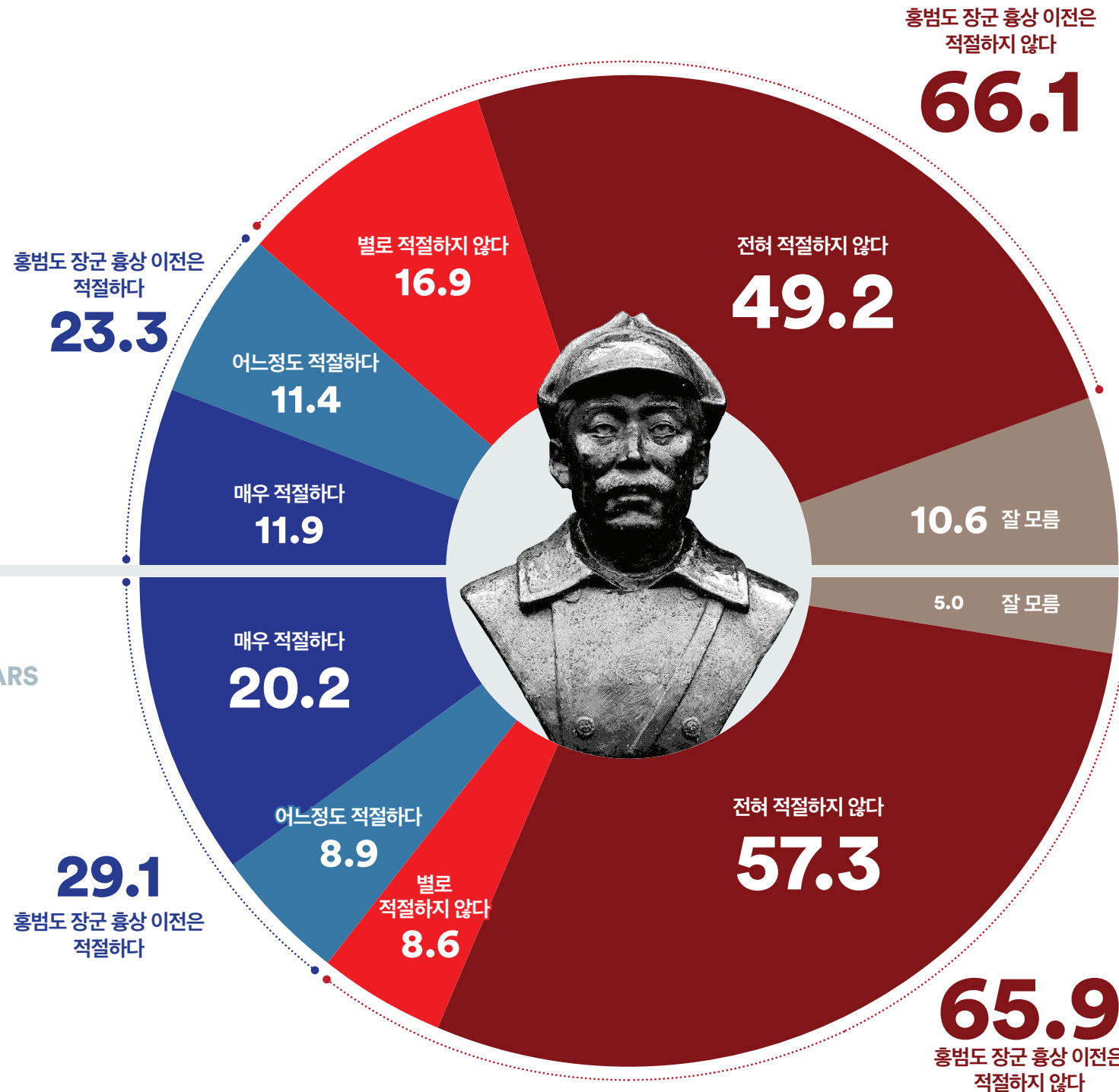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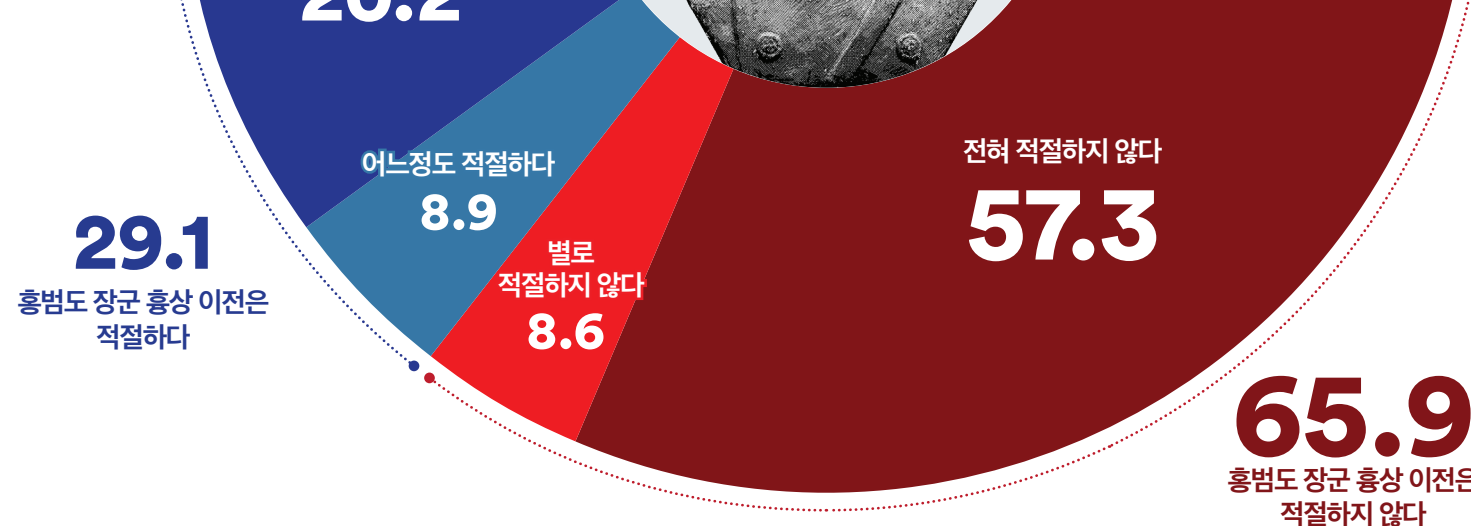
Q.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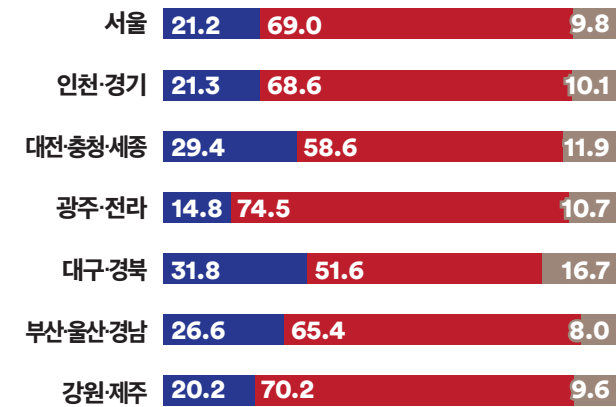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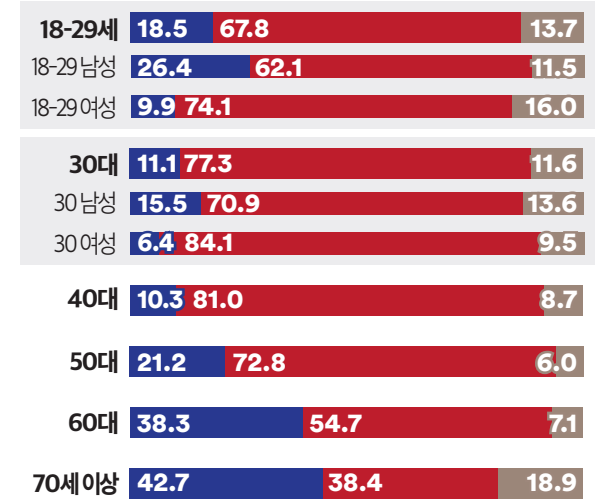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부정적 의견,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 혹은 그 이상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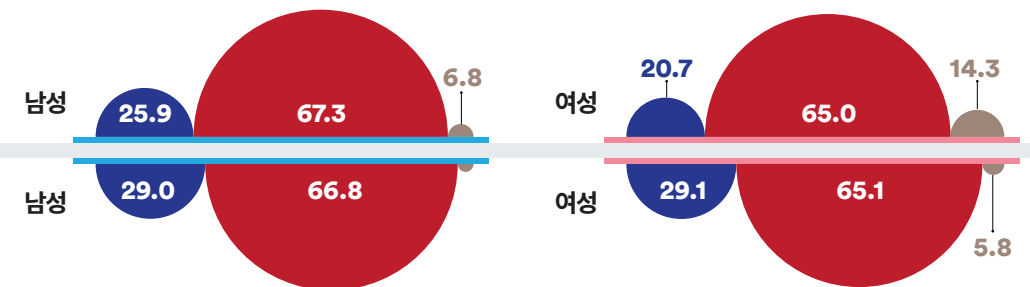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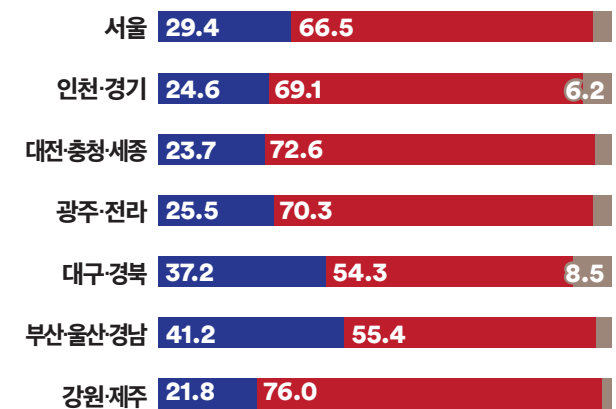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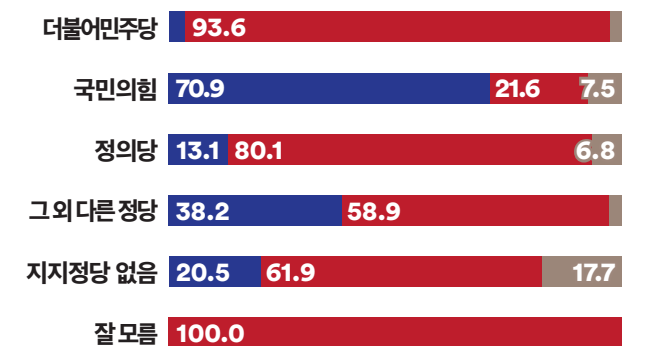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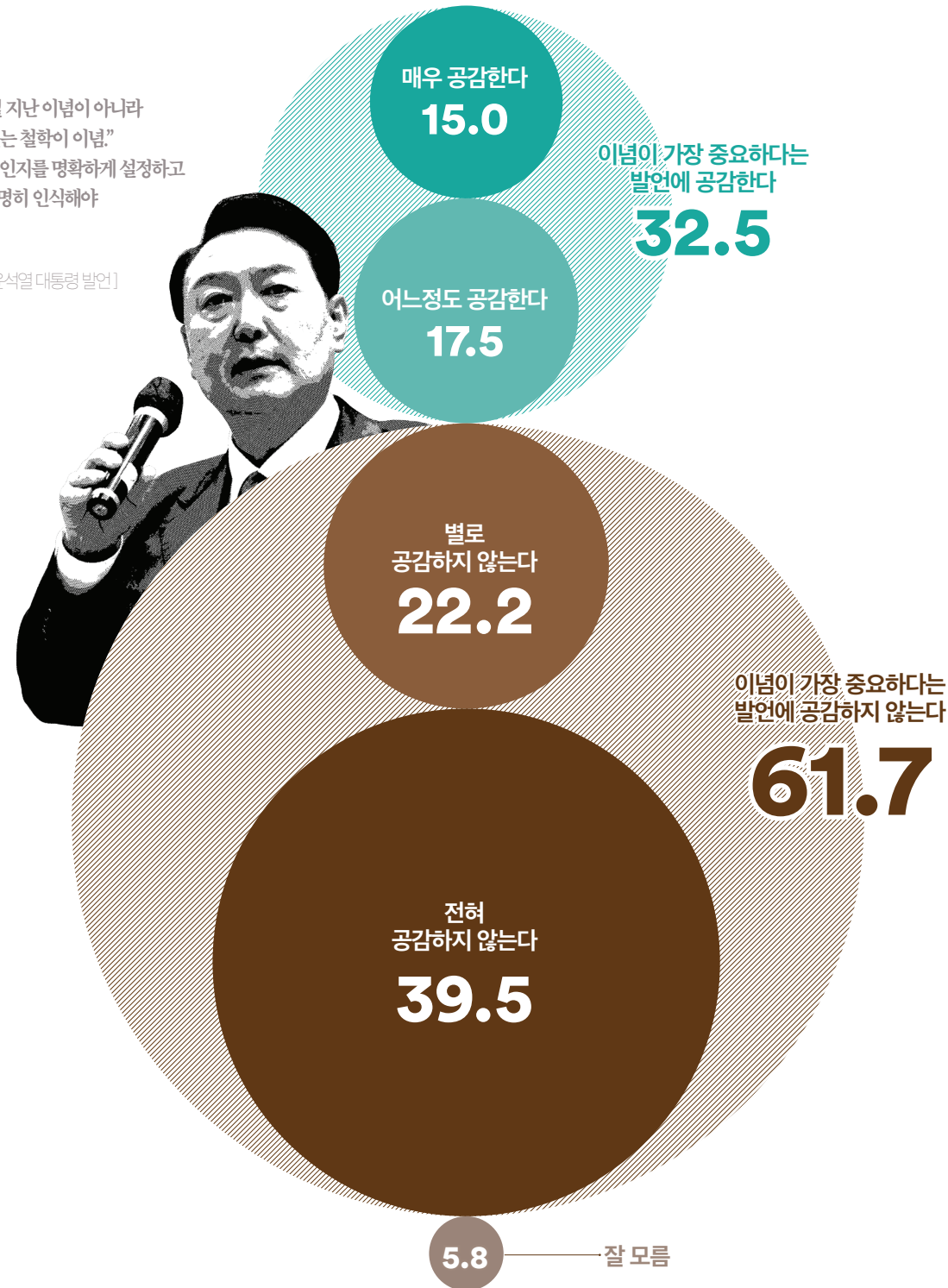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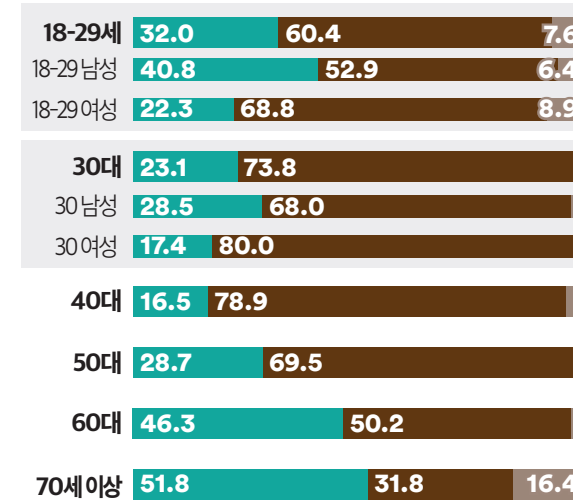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갈 수 있는 철학이 이념.”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현재의 좌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

[2023.8.28. 국민의힘 연찬회, 윤석열 대통령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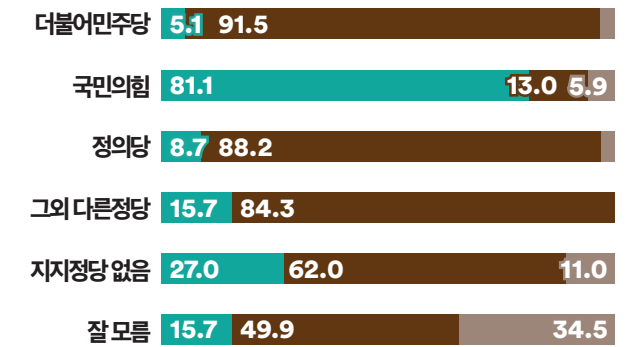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
TK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섬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35%p가 넘는 격차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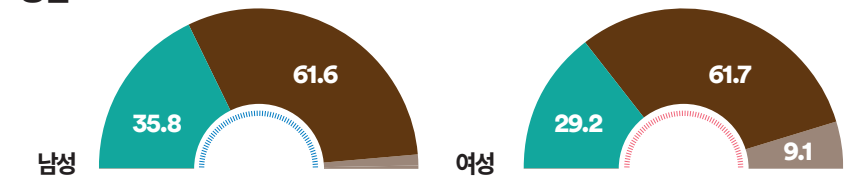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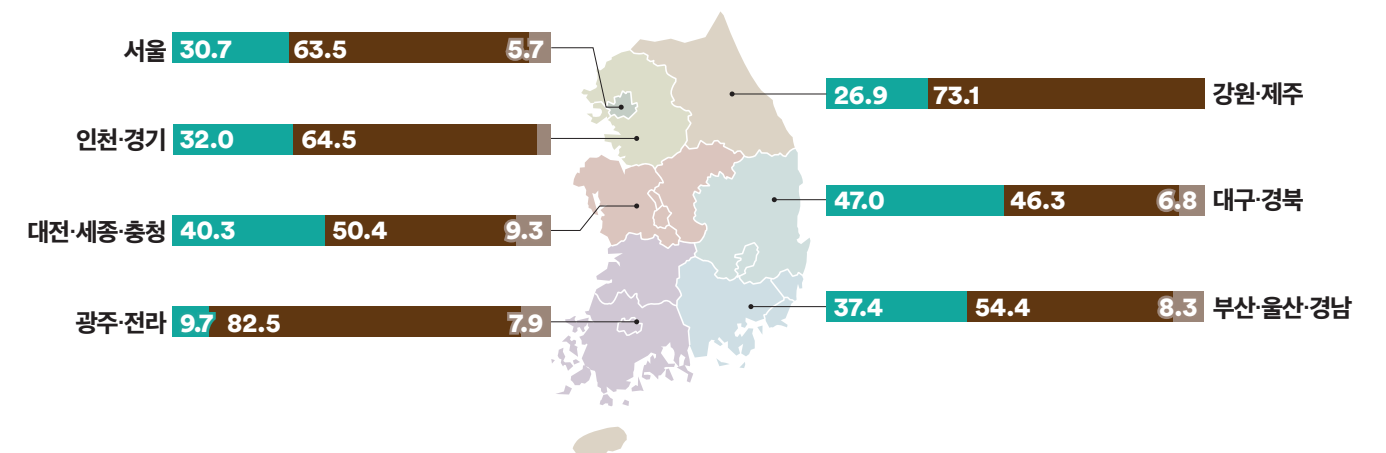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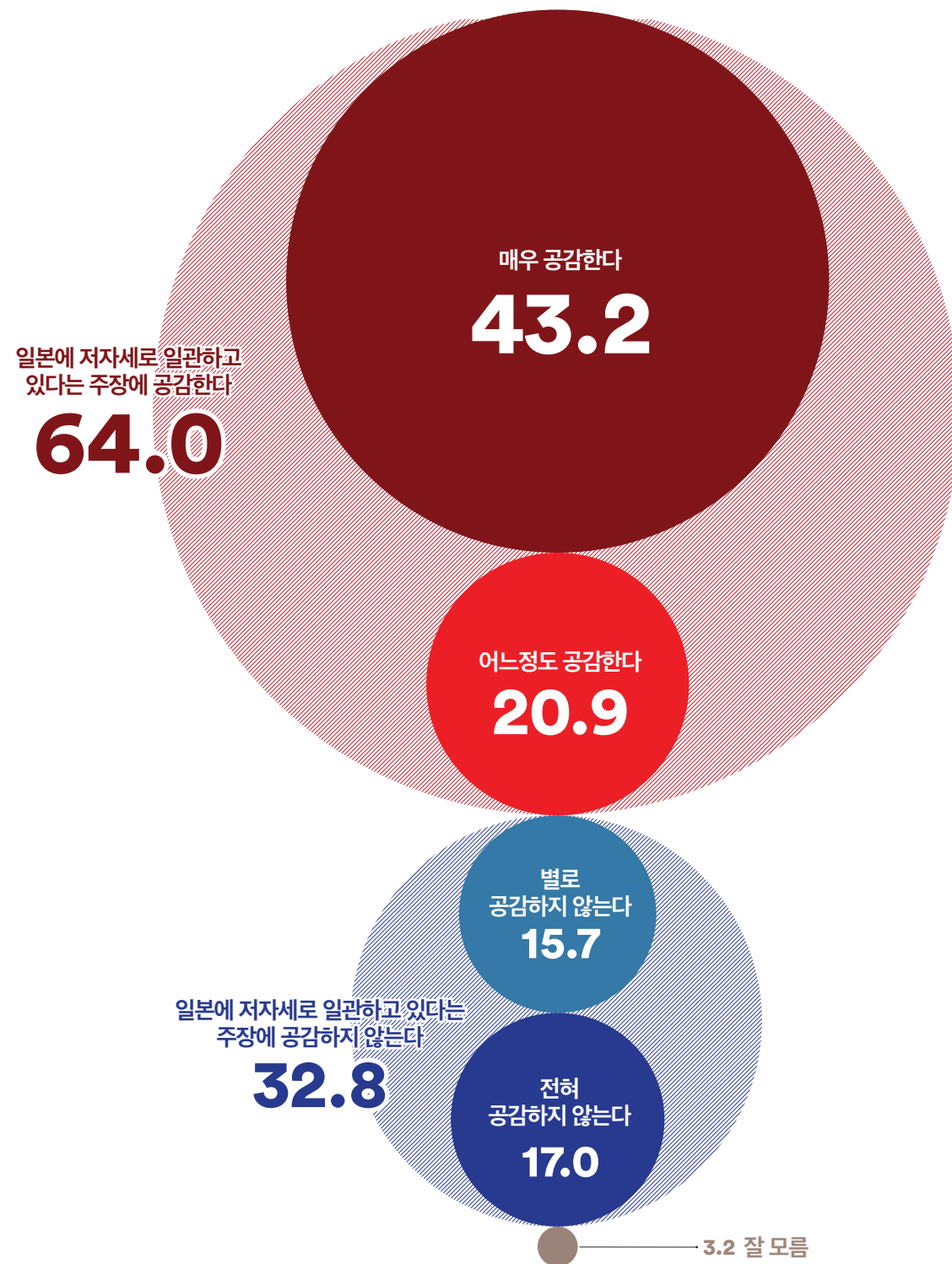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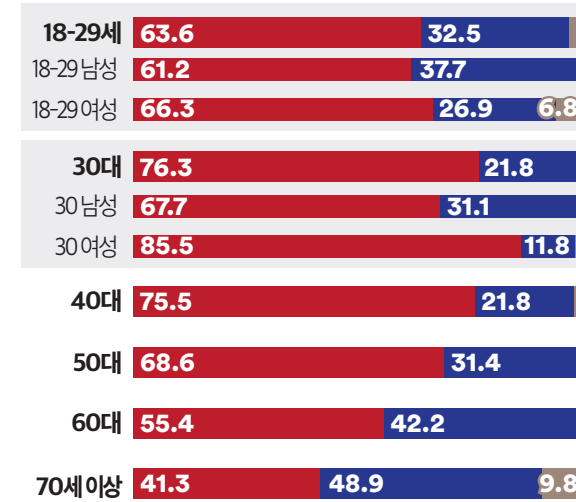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Q.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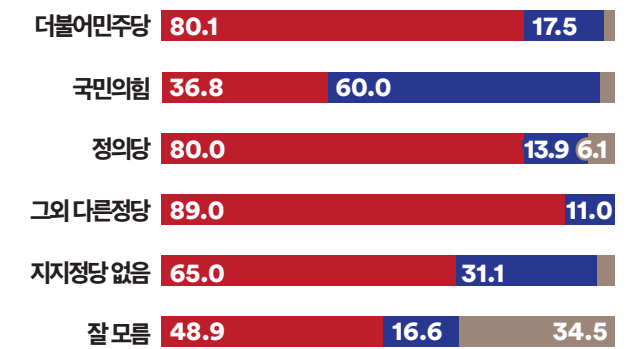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과 모든 권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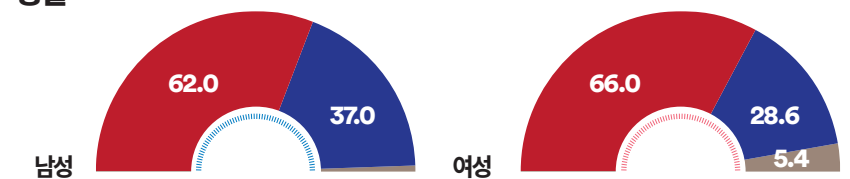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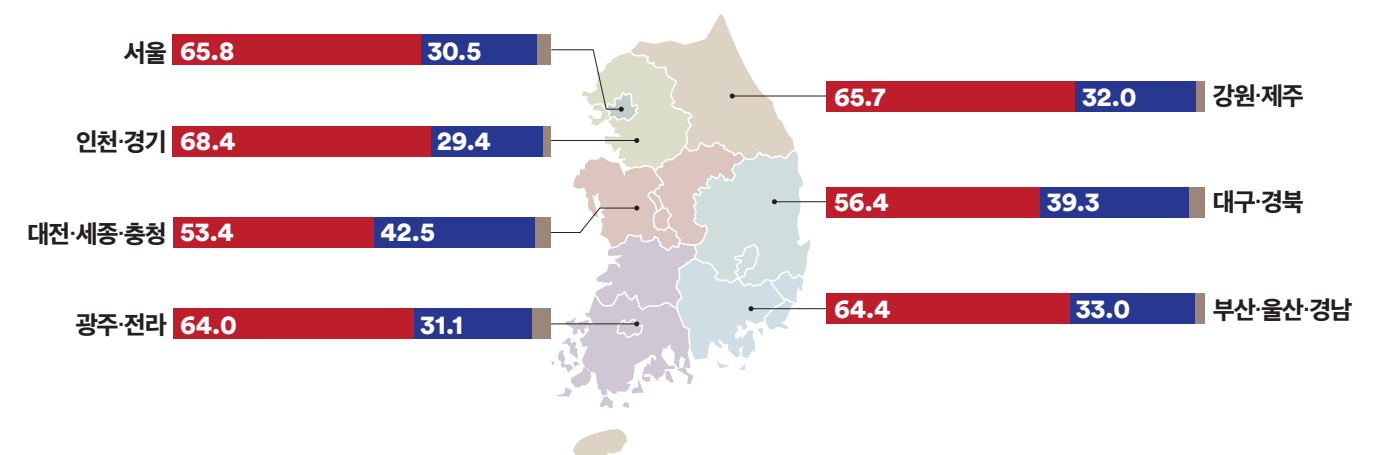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09_01

여론조사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